2015 한국홀스타인품평회 개최현장

고능력 젖소 확보 향한 열정, 결실 맺어

2015년 한국홀스타인품평회(주최: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지난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농협 안성팜랜드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이번 품평회에는 전국 86농가에서 171두를 출품했으며 5천5백여명의 관람객이 현장을 찾았다. 이번 품평회에서 그랜드챔피언의 영예는 최광현(대흥목장, 경북 칠곡) 대표의 '대흥 골드윈 던디 589호'에게 돌아갔다.

출품축의 심사담당자는 "대체로 대부분의 개체들이 상향평준화 된 것 같

다. 특히 경산우는 체형이 균형적이며 짜임새가 매우 훌륭하다"고 평하고, "이번 그랜드챔피언은 체형이 아름답고 3산차에서 보기 힘든 유방과 유용자질이 보였다"고 전했다.

'대흥 골디윈 던디 589호'와 그랜드챔피언 자리를 두고 열띤 경합을 벌인 '설성 에어레이드 모티 826호'는 준그랜드챔피언에 선정됐다. 이외에도 부별로 최우수 · 우수상 · 주니어, 준주니어, 인터미디어트, 준인터미디어트, 시니어, 준시니어 그리고 최우수육종농가상 등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한편 '코리아나 세일'에는 혈통과 능력이 검증된 고능력우를 구입하려는 낙농가들의 관심이 쏠렸다. 응찰된 젖소는 모두 우수한 혈통과 높은 심사성적을 받은 개체로, 낙농가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5두 모두 낙찰됐다. 이 중에서 그랜드챔피언을 수상한 최광현 대표의 '대흥 던디 알렉산더 694호'가 535만원으로 최고가격을 기록했다.